

타이틀	03. 이루리, 회의록을 작성하다.
배 경	C시스템 시설관리팀
등장인물	이루리: 20대 남, 신입사원 김대리: 30대 초반 남. 이루리 선배 박팀장: 40대 남. 근엄해 보이는 관리팀장 최과장: 40대 남. 기술직 고참 한대리: 30대 남. 김대리와 동기인 선배.

시놉시스

월요일 아침마다 열리는 팀원들 업무공유를 위한 주간공유회의. 이루리는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회의실을 열어놓고 노트북을 가져다 놓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일찍 출근한다. 그런데 회의록 담당인 김대리에게 문자가 온다. “T 빌딩 전기실로 급히 외근 나감. 메일로 보낸 주간공유회의 자료 7부 복사해서 들어가 주세요.”

메일을 확인하니 김대리가 보낸 주간업무공유자료가 와있었다. 이루리는 프린트를 하기 전에 용지가 충분한가 확인하려 복사기로 들어가는데 벽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면지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순간 헛갈리는 이루리. 이것도 이면지에 출력해야 하나? 팀장님이 참가하는 회의니까 새 종이에 하는 것이 예의일까? 이루리는 선택이 틀렸을 경우 ‘공지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편이 ‘팀장님이 새 종이를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 이면지에 출력한다.

회의 시간이 다 되었지만 김대리는 도착하지 못한다. 팀장은 이면지를 보더니 이루리를 칭찬한다. 팀장은 아직 도착하지 못한 김대리에게 전화해 서두르지 말고 일 다 해결하고 들어오라고 지시한다. 회의결과는 이루리씨에게 정리해서 보내라고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는 말에 놀라는 이루리. 옆 자리에 있던 한대리는 이루리에게 업무별로 정리된 출력물의 표에 옆에 진행중, 완료, 지연 표시를 하면 된다고 가르쳐 준다. 주간업무 공유회의가 시작된다. 각자 자기가 맡은 업무의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 이루리는 7명의 팀원이 하는 일이 적혀 있는 자료를 보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메모를 해나간다.

메모하던 이루리는 모르는 용어나 상황은 결국 질문해서 확인한다. 회의 중 팀장님은 방금 지연으로 표시한 업무 옆에 EPC라고 적으라고 한다. 모르는 용어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한 번 물어보는 이루리. 옆의 대리님이 “설계, 설비, 시공일괄계약”이라고 가르쳐 주며 잘 물어본다고 칭찬한다.

복귀한 김대리는 자기가 미처 체크 못한 이면지까지 챙긴 이루리를 칭찬한다. 이루리는 김대리가 오전에 보내준 파일에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회의 날짜와 시간도 적어 넣어서 김대리에게 보내고 부듯해 한다.

대 본

#1 타이틀 : 이루리의 회의록을 작성하다.

#2 회의실, 아침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에서 회의준비를 하는 이루리. 문을 열어놓고 칠판을 지우고 물병과 종이컵을 가져다 놓는 중, 핸드폰이 울리고 전화 받는 이루리.

루리 C시스템 시설관리팀 이루리입니다. 아.. 김대리님 주간 공유회의가 30분 후에 시작인데 지금 어디 계세요?

화면 분할되며 전화 상대방 김대리 등장

김 (현장 소음으로 시끄럽다.) 내가 아침에 문자 보냈는데~ 확인 안 했어요?

루리 문자요? (핸드폰 보고 헉! 하며) 아... 죄송합니다. 온 지 몰랐습니다.

김 (답답하다는 듯) 업무문자는 빨리빨리 확인해야죠. 저 지금 정신없으니까 문자 보고 처리 좀 해줘요!

전화 끊고 사라지는 김대리. 급히 문자 확인하는 이루리

루리 (징징거리듯 혼잣말) 진짜 문자가 와 있었네! 업무시간 전에 온 문자라 방심했어. 하아...
(김) (문자화면 위로 김대리 음성만 들림) AB빌딩으로 급히 외근 나감. 주간업무 공유회의 참석 시 메일로 보낸 주간공유회의 자료 7부 출력해서 들어가 주세요.”

집중해서 뚫어져라 문자 보고 있는 이루리 얼굴에서 화면 멈추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

루리 (가우뚱) 주간공유 회의자료? 아, 매번 김대리님이 나눠주던 그 회의자료! 외근 때문에 못 들어오시니까 나보고 해 달라는 말이구나. 회의 30분 전이니까 빨리 인쇄를... 아니다. 걱정하실테니 일단 답변 문자부터 보내자.

화면에 답변문자 나온다. 이루리가 문자 보내는 모습 위로 이루리 목소리 들리고

루리 (음성만) 문자 확인했습니다. 자료 출력해서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자 확인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딩동 바로 답변문자가 오면 화면에 문자창이 올라온다.

(김) 7부 부탁. 저는 일 끝나는 대로 복귀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루리 (가우뚱) 많이 늦지 않는다는 건 회의 도중에 들어오신다는 건가?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딩동 다시 올라오는 루리의 두 번째 문자

루리 (음성만) 그럼 회의에는 참석 못 하시는 건가요? 다른 분들께도 불참하신다고 공유 드릴까요?

딩동 이어서 올라오는 김대리 답변문자

(김) (음성만) 점심 전에는 끝날 것 같아요. 일찍 끝나면 회의 도중이라도 들어갈게요.

딩동, 루리의 세 번째 문자

루리 (음성만) 네. 그렇게 공유하겠습니다.

#3 이루리 자리

후다닥 다급하게 와서 서둘러 PC를 클릭해 메일 열어보는 이루리. 시계가 9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다.

루리 (조급하게 혼잣말) 회의 20분 남았는데... 아, 여기 있다. 김대리님이 보낸 메일... 첨부파일... 주간공유 회의 자료. (클릭하며) 7부 출력... (누르려다가 멈칫)

클릭하려는 순간 화면 멈추며 이루리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

루리 잠깐. 프린터기에 용지는 충분한가? 확인부터 하자.. (서둘러 뛰어나가는)

#4 복사실

시계가 9시 15분을 넘어가고 있다. 프린터기 앞. 당황한 이루리 얼굴. 이루리가 새 프린트 용지를 손에 쥐고 벽을 쳐다 보고 있다. 벽에 붙은 공지문 “이면지를 사용해 주세요.”



루리 이면지...? (급하게 핸드폰 누르며) 김대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면지에 출력해야 하는 건지... (뚜루루루 뚜루루루 신호만 계속 간다.) 아, 전화 안 받으시네...

순간 화면 멈추며 이루리 머릿속에 빠르게 지나가는 생각

루리 (당황하고 다급해서) 큰일이다! 곧 회의 시작하는데 어찌지? 이면지에 해야 하나? 아니면 팀장님 것만 새 종이에 해? 이면지에 하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그냥 다 새 종이에 할까?

루리 (결심했어! 분위기로) 안내문을 봤는데 무시할 수는 없어. 이면지에 하자. 팀장님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면 최소한 이유는 있잖아.

새 용지를 내려놓고 이면지 함에서 이면지를 꺼내는 루리.

루리 (급하게 용지를 넣는다.) 기존 사용면을 위로 하고, 위쪽을 종이 공급자 방향으로... 위쪽? (안내문과 이면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아, 글씨를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어느새 9시 20분을 넘어가고 있는 시계 바늘

#5 회의실

9시 30분. 정장에 잠바를 걸친 박팀장이 딱딱한 얼굴로 걸어 들어온다. 박팀장이 둘러보면 회의실에는 김대리 자리가 비어 있고, 팀원 4명 정도가 앉아 있다. 이루리가 안 보인다 싶은데 자료를 각각의 자리에 올려놓느라 서 있던 이루리가 팀장님 자리에도 올려놓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뒤돌아 후~ 안도하는 표정의 이루리

박팀 (자리에 앉으며) 그럼 주간공유회의 시작합니다... (빈자리 보고) 김대리는 아직인가?

최과장 (둘러보며) 연락 받은 사람?

루리 (쭈뼛쭈뼛 손들면 다른 사람들이 일제히 루리를 본다.) 끝나는 대로 바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점심 전에는 끝날 것 같다고, 회의 중간에라도 들어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화면 멈춤, 루리 속생각

루리 아, 미리 확인해놔서 정말 다행이다!

박팀 (혼잣말처럼) 그거 쉽게 처리될 것 같지 않던데... (출력물 들어보며) 그럼 이걸 이루리씨가 했나?

루리 (또다시 일제히 루리를 보는 사람들, 다시 부담스럽게 일어나는) 네. 제가 했습니다. 김대리님이 아침에 메일로 보내주셔서... (슬그머니 자리에 앉고)

박팀 (출력물 넘기며) 이면지네?

루리 (막 앉으려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며) 네. 복사실에 이면지를 사용하라고 안내가 있었습니다.

박팀 (무덤덤) 잘했네. 김대리가 맨날 깜박하더니. 다들 이면지 쓰세요. 아셨죠?

일동 네

루리 (칭찬받은 것 같아 혀 벌어지는 입을 고개를 숙여 감추고)

최과장 김대리가 없으니 오늘 회의내용 정리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팀 알아서 하세요.

최과장 (앉아있는 팀원들 휘 둘러보면 전부 시선 피하는데 이루리랑 눈이 딱 마주친다.) 이루리씨. 회의 들으면서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어요?

놀란 이루리 표정에서 화면 멈추며 빠르게 지나가는 이루리 생각
루리 (놀란 목소리) 아니요! 안되죠~ 못해요. 아직 무리입니다!

박팀 (후딱후딱 넘어가자는 듯) 모르면 물어보면서 하면 되지. 루리씨, 해 보세요..

루리 네! (난감해서 프린터 뒤적이며 눈동자 굴리는데)

한대리 (이루리 옆에서 나직하게) 프린트랑 별로 다른 내용 없으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만 추가로 적으세요.

루리 (반가워서) 네!

박팀 자, 빨리빨리 합시다. 다 바쁘잖아. (프린트 쪽 훑어보며) 김대리 업무는... 없으니까 패스... 한대리... 그래서 A빌딩 부품교체는 끝?

한대리 이번 주에 한 번 더 가서 체크해보고 완료 처리하겠습니다.

박팀 오케이...

한대리 (이루리에게 프린트에서 자기 부분 손으로 짚어주며) 여기에 '금주 중 체크 필요. 그 후 완료 처리', 라고 쓰시면 돼요.

이루리 네. (펜으로 적고)

(참고)

참가자들이 발표하는 내용 일부가 나오면서 이루리가 정리하는 모습 교차되어 지나간다.

최과장 지난주에는 H아파트 계약 건은 완료되었습니다. 금주에는 F정밀 담당자를 만나서 기계 수리 일정을 확실히 받으려고요. 금주 중에는 반드시 다 끝내놔야죠.

박팀 기계 고장이 원인인 게 확실해요? 예전에도 똑같은 문제였었는데?

최과장 이번에 수리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리, 열심히 받아쓰는 모습과 최과장 표 옆에 '기계 고장으로 수리 중'이라고 정리하는 모습, 옆에서 보고 끄덕이는 한대리

박팀 (프린트 보며) 최과장 바빠서 보고서는 못하겠는데요? 수요일까지 한대리가 대신 할 수 있나?

한대리 저 수요일에 교육입니다.

박팀 (프린트의 해당 부분 톡톡 치며) 그러네. 최과장님 혼자 하실 수 있겠어요?

최과장 아무래도 인력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흠.. 고민하는 박팀장)

이루리 받아 적는 모습, 한대리 수요일 교육에 동그라미하고 '해당일 업무 불가'라고 쓰고 최과장 금주 업무의 보고서작성 옆에 '인력지원 필요'라고 쓴다.

장면 바뀌고

박팀 (프린트 보며) 이번 주에 실적보고 준비회의는 못하겠는데요? 다들 시간이 안 되잖아요. 다음주로 연기합니다. 대신 회식하면서 간단히 얘기하죠. 뭐. 점심 회식.

이루리, 공통일정 칸에 있는 '실적보고 준비 회의' 옆에 화살표 하고 '미팅 차주로 연기'라고 쓴다. 그리고 한대리가 옆에서 짚어 주는 위치에 '주중 전체 일정-점심 회식'을 추가한다.

잠시 후, 회의 마무리



박팀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합니다. 공유해야 할 내용 더 없죠?
일동 네
박팀 목요일 점심 회식 잊지 말고. 장소는 좀 일찍 공지하고. (또 열심히 그 말 받아 적는 이루리) 다른 질문은?
(하며 이루리 쳐다본다.)

이루리, 필기하고 고개 들면 자기를 쳐다보는 박팀장 눈과 딱 마주친다.

착하게 미소 띤 이루리 표정에서 화면 멈추며 빠르게 지나가는 생각

루리 (혼란스러워서)날 보시는 건가? 왜? 질문? 뭘? 아, 맞다. 회식 공지는 일찍 하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해야 일찍인 거지?

루리 (자신 없이 작은 목소리로 장황하게) 그럼 회식 장소 공지는 음... 김대리님이 항상 공지를 해오셨던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나 둘 이상하다는 듯, 무슨 소리냐는 듯 루리를 돌아보는 다른 사람들

멈추는 화면, 빠르게 지나가는 생각

루리 *진정해! 뭘 물어보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전부 당황할 거야!*

루리 그러니까... (헛기침하며 또랑또랑) 회식 장소 공지는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까지 하면 될까요? (아~ 그 얘기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고개)

박팀 (쿨하게) 그럼 되겠네. 또 질문 없고? (휘 둘러본 후) 그럼 이만 끝. 이번 주도 잘 달려봅시다.

박팀장이 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 출지에 따라 나간다. 한대리는 옆에서 이루리가 적어놓은 것들 살펴보고 있다.

한대리 (루리 출력물 훑어보며)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적었네요. 잘했어요. 이거 그대로 정리해서 김대리한테 보내주세요. (일어나고)

루리 네. (따라 일어나면 한대리 나가고, 한숨 쉬며 자리에 털썩 앉는다.) 하아. 별일 없었어.. 다행이다. 진짜.

#6 이루리 자리

PC에서 필기한 자료를 보며 회의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이루리. 워드화면 함께 보여주며

기존 표에 열 추가하여 <참고사항>란을 만들어 회의내용을 손으로 정리한 걸 그대로 입력하는 모습. 자신이 추가한 내용은 파란 글씨, 별표 친 중요한 내용은 빨간 글씨로 바꾼다.

루리 (워드 치며) 됐다. 어디 틀린 부분 없는지 확인해볼까? 아 별표 친 내용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빨간 글씨로 해야겠다. 엇, 오타. (오타 고쳐지는 화면, 죽죽 내려간다.) 됐다...

루리가 부듯하게 웃는데 급히 들어오는 김대리

김 아 이루리씨! 오늘 고마워요! 덕분에 일 잘 끝났어요.

루리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 문자 늦게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김 괜찮아요. 잘했다던데? 회의록은요?

루리 방금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내용만 짧게 요약했습니다.

김 오오~ 빠르네! 고마워요, 내가 다음에 맛있는 커피 쓸게.

김대리 사라지고, 루리 뒤돌아서 아싸~ 소심하게 작은 파이팅 포즈로 기뻐한다.